



해외양돈뉴스



※중국

美 돈육 한번에 2천톤 수입 추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돼지고기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한 수입회사는 연말 이전에 미국 스미스필드로부터 2천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일 거래로는 최대 규모로 올해 돼지 질병 확산으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한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1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 가량 늘어난 8천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중국 내에서 번지고 있는 돼지 질병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의 변종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 변종은 PRRS에 비해 폐사율이 높아 자돈 폐사율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어 지난달 중순까지 감염 25만7천 마리, 폐사 6만8천 마리, 살처분 17만7천마리로 각각 집계됐다고 중국은 전했다. 그러나 외신과 중국 내 전문가들은 5억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중국에서 돼지 값이 60% 이상 폭등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돈육 수출 감소, 수입 증가세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최근 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돼지고기 수출은 3만9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급등과 최대 시장인 러시아로의 수출이 안전성 문제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수입은 크게 늘어 1분기 8천 톤을 기록, 일년 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상반기 돈육 수출 줄어

61만톤 규모... 금액은 소폭 증가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감소했음에도 수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6월 돼지고기 수출량은 9만8천여 톤으로 전달과 지난해 동월 10만여 톤에 비해 2% 가량 줄면서 올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상반기 돼지고기 수출량은 61만여 톤으로 지난해 동기 64만5천여 톤에 비해 5%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수출금액은 14억7천만 달러로 06년 동기 견줘 5%가 증가했다. 이는 냉장육 등 단가가 높은 품목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가별로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18만8천여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멕시코가 13만3천 톤으로 일본과 멕시코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만

양돈농가 美 돈육 수입 중단 요구

미산 '락토파민' 잔류 허용 조치로

대만이 돼지 호르몬제인 락토파민에 대해 수입산과 국내산에 이중 잣대를 적용,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타이베이 aT센터에 따르면 대만 농민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발표한 '락토파민 표준 함량과 해금에 관한 초안'을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락토파민 사용 금지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산 등 수입 돈육에 대해서는 락토파민 잔류를 허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의 수입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대만의 양돈농가들은 위원회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천 명의 양돈농가들은 지난 8월 21일 보건부 앞에 집결, 계란을 던지고 차량을 불태우는 등 항의 행진을 벌이며 미산 돼지고기 수입 반대와 농민위원회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대만으로 수입된 미산 돼지고기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돼 지난 6월부터 전량 반송처리 했으며 국내산 돈육에서도 락토파민이 문제가 되면서 잔류 허용문제에 대해 의견이 대립돼 왔다.

※ 일 본

돼지고기 생산량·소비량 모두 감소세

돼지고기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년 생산량은 123만5천 톤으로 지난해 124만 톤에 비해 0.4% 가량 줄어 지난 '04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량 역시 250만 천여 톤으로 '06년 253만 톤 대비 1.1%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생산량 감소에도 돼지고기 수입 수입량은 122만8천 톤으로 일년 전 125만 톤에 견줘 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돼지고기 자금률은 지난해와 같은 4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가격 계속 상승세 전년 3분기 후 상승세 유지

일본도 배합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배합사료가격은 지

난해 9월까지 안정세를 보이다 10월 이후 올해 7~9월 까지 4분기 연속 인상됐다. 일본 전농이 고시한 분기별 배합사료 가격 추이를 보면 '06년 4분기 1천700엔/톤, '07년 1분기 5천500엔/톤, 2분기 3천200엔/톤, 3분기 1천100엔/톤이 각각 올랐다. 이에 양돈 사료의 경우 06년 7~9월 kg당 45엔에서 10~12월 47엔, 07년 1~3월 53엔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옥수수 등 사료 곡물가격과 해상운임의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4분기에도 가격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연합

돈육 수출 크게 감소

42만 톤 전년비 12% 감소

유로화 강세 영향 분석

유럽연합(EU)의 돼지고기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1분기 EU의 돼지고기 수출은 42만3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로 몰렸던 수요가 올 들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풀이했다. 또한 유로화 강세도 수출을 줄이는 주요인으로 작용, 특히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는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수출량을 보면 덴마크, 독일은 1분기 12만9천 톤, 6만9천 톤으로 전년비 14.1%, 6.7%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3위 수출국인 네덜란드는 4만5천 톤으로 일년 전보다 12.6% 증가했다. 이 밖에 프랑스 4만2천 톤, 스페인 3만1천 톤으로 각각 6%, 10.2% 적게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돈육으로 국민건강, 양돈으로 농촌건강